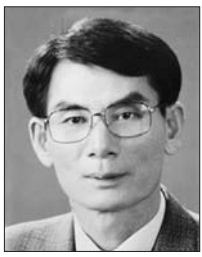


### 이정랑의 古典探究



言論人(中國古典 研究家)

## 사람을 선택했으면 그 다음은 세에 맡긴다(擇人任勢)

이 말은 '손자병법' '세편(勢篇)'에 나온다.

그런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승리를 세(勢)에서 찾지,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까닭에 적재적소에 인재를 골라 쓰고, 그 다음은 세에 맡긴다.

'사람을 선택 한다'는 뜻의 '택인'은 적의 상황에 따라 우수한 지휘관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자기 쪽 사람을 가리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의 인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세에 맡긴다'는 뜻의 '임세'는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유리한 전쟁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가리킨다. 적의 정세가 변하면 용병술도 달라진다.

동시에 지휘관이 다르면 용병방식도 달라진다.

'무경총요(武經總要)'에 보면 "무릇 대장이 임무를 맡으면 먼저 사람을 골라야 하는데, 인물의 용기와 비겁, 재능의 정교함과 거침을 파악하여 알맞게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군을 잘 다스리는 정치"라는 대목이 나온다. 고급 장수의 중요한 기능은 인재를 골라 그 인물이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15년, 조조는 인재들을 기막히게 활용함으로써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장요(張郃) 등으로 하여금 합비(合璧)를 고수하게 하여 손권(孫權)의 10만 대군을 크게 무찔렀다.

228년, 제갈량은 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다.

위나라 명제(明帝)는 서둘러 5만 대군을 동원해 우장군(右將軍) 장합(張合)으로 하여금 서쪽으로 가서 촉나라 군대를 막도록 했다.

이때 촉군은 선봉대장을 선발해 요충지인 가정(街亭)을 지켜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전장에서 경험을 쌓은 위연(魏延)이나 오의(吳懿)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다.

하지만 제갈량은 '여러 사람들의 뜻과는 달리 마속을 뽑았다' 그러나 결과는 장수를 잘못 기용하는 바람에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그 때문에 전체 국면이 뒤흔들려 촉군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이미 손에 넣었던 농서(農西) 3군마저 포기한 채 한중(漢中)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제갈량은 이 북벌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교훈을 되새기면서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후회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유명한 고사는 여기서 나온다.

역시 삼국시대의 원소 밑에는 모사가 구름처럼 모여들고 장수는 내리는 빗방울만큼 많았다고 할 정도로 인재가 넘쳐났다. 그러나 원소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쓸 줄 몰랐다.

전풍(田豐)과 저수(沮授)는 바른 소리를 하다가 옥에 갇혔으며, 허유(許攸)와 장합과 고람(高覽) 등은 원래 원소를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 생각했다가 점차 회의를 품고 조조 진영으로 도망가버렸다.

장수 선발을 제대로 못 하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한 것이 원소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이었다.

'택인'과 '임세'는 한 문제의 두 측면이다. 병사를 통솔하는 작전에서 '택인'이 없으면 어떻게 용병할지 모르게 되고, '택인'이 없으면 장수의 우열을 알 수 없다.

적의 정세를 알아야 비로소 정확하게 '임세'할 수 있다. 장수의 우열을 알면 각 부서가 타당하게 배치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택인임세'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 큰 책략으로서, 통치 예술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 社說

### 설 연휴 구제역 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이길

설 연휴 민족대이동을 앞두고 구제역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에 따르면 31일 충북 충주시 주덕읍 한 농가로부터 기르던 소가 침을 흘리고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정밀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 동물위생시험소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젖소 농가에서 지난 28일 올해 겨울 첫 구제역이 발생했고, 29일 인근 양성면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됐다. 아직 안성 구제역 발생 농가와 충주 농가 사이의 역학관계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제역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구제역이 첫 발생지역인 경기도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구제역이 워낙 전염성이 강한데다 인구 대이동이 따르는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어 조금이라도 방심했다가는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농림식품부는 전날 안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자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다. 경보는 가장 낮은 '관심'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까지 4단계인데 이번이 최고 수준인 단계까지 높은 것이다.

구제역은 초동대응을 잘못해 저지선이 뚫리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가 쉽지 않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한 정확한 역학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

역학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방역의 길목을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다. 초동대응팀 신속 투입, 살처분이나 예방적 살처분, 통제선 구축, 이동제한 등 가족전염예방법에 따른 구제역 대응 매뉴얼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역량을 총투입해 백신 접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

백신 접종률의 효율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제역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백신만 한 것은 없다.

우리는 구제역 확산의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다.

2010년 11월부터 발생한 구제역이 2011년 4월 말까지 전국을 휩쓸면서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350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피해액만도 3조원에 달했다.

그 후 백신이 보급되고 접종도 이루어지면서 그때처럼 대규모 피해는 없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충주 농가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고 유히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에서 구제역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상 상황에 따라 기로도 전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가는 모든 상황에 최고 수준의 경계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 독자 기고

####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

이제 몇일 있으면 구정(舊正) '설'이다. 옛부터 정월 초하루 음력설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춘절이라 하여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쉬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연휴다.

이제 몇일 있으면 구정(舊正) '설'이다. 옛부터 정월 초하루 음력설은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춘절이라 하여 적게는 7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 쉬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연휴다.

수 십년전 어렸을 적 이 무렵이면 고향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과 사고로 故郷(고향)가는 길이 昔郷(고향)가는 길로 변해 버린다.

집을 떠날 때는 도난을 대비한 준비도 하여야 하겠지만 화재를 대비하여 필요 없는 각종 콘센트는 뽑아두고, 가스밸브는 잠금 두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연락처 정도는 경비실 또는 인근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은 필수다. 또한 주방에서는 조리용 화기 단속은 물론이고, 집집마다 안전 가제대구인 소화기는 꼭 갖춰둬야 하겠다.

최근 소방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의 의무화 되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다고 한다.

금년 명절 설날은 가족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소방관련 안전시설물을 구비해 두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며, 안전한 故郷(고향)가는 길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김용진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장

### 독자 기고

#### 겨울철 소화전 안전관리 주정차 금지 생활화 해야

우리는 길을 걷다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설치된 소화전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설치된 소화전은 무관심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다.

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도착 즉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화재현장 인근 소화전 점검!" 일반 시민들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소화전이라는 녀석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에 정말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이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에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 33조 3항에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며,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 되는 날까지 시민의식이 더욱 성장하기 바라고 있다. 또한 각 가정이나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백중희 무안소방서 무안안전센터장

전남도민일보 www.jndomin.kr 6124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 소석빌딩 5층

회장 김경 대표전화 (062)227-0000 FAX (062)227-0084  
발행인 전광선 광고 (062)227-0083 구독료 월 10,000원  
사장·편집인 이문수 등록번호 광주, 가25(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편집국장 제갈대중 서울사무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91-7 에이스테크노8차 140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마음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세상을 읽는 바른신문

전남도민일보
지역기자안내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지역	직급	성명	연락처
광안구청	국장대우	고훈석	010-9992-8212	강진	차장	전운재	010-6221-3346
광안	차장	고도경	010-3699-3804	해남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동구	국장대우	서기만	010-4602-0708	장성	부장	정윤선	010-3640-6323
남구	기자	이유빈	010-9632-5879	무안	차장	김수형	010-3648-0281
북구	부장	김정관	010-9464-2555	영광	차장	김진	010-9221-0000
목포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여수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신안	국장대우	박성태	010-3602-5869	순천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나주	국장대우	김동철	010-3604-2611	광양	본부장	오승택	010-2080-6002
담양	국장대우	김종연	010-6297-7599	고흥	본부장	윤규진	010-2001-8078
곡성	부국장대우	심섭선	010-3608-2634	함평	차장	박정호	010-5189-5639
구례	국장대우	심건식	010-4624-0005	영암	국장대우	김희선	010-3631-1617
보성	국장대우	김용욱	010-3602-8103	완도	국장대우	유대성	010-5007-5983
회선	차장	남호경	010-3624-6785	진도	부장	한길준	010-8265-8848
장흥	국장대우	김정근	010-3601-3517				